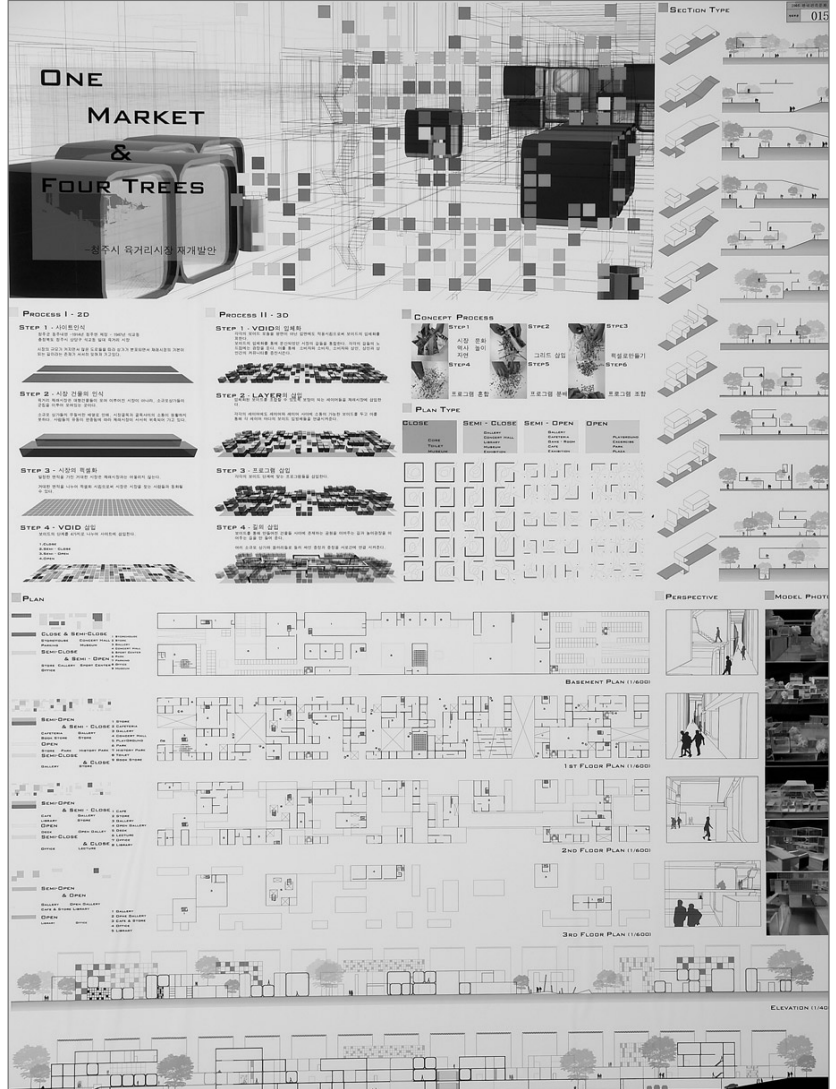


One Market & Four Trees

이선재 |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

박은미 변나향 |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



육거리 재래시장-Void 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삽입

나무는 햇빛을 잎으로 받아 광합성을 하여 영양분을 생성, 생명을 영위한다. 때문에 잎과 잎 사이의 Void는 햇빛을 고루 받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. 건축적도 이와 같다. 그러나 현재 청주시 석교동에 위치한 육거리 재래시장은 흡사 햇빛이 들어 올 수 없을 만큼 뻥뻥한 앞들을 가진 나무와 같다.

이러한 육거리 재래시장 내에 Void(close, semi-close, semi-open, open)를 제공하고, Void의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장 내에 삽입함으로써 새로운 재래시장의 모습을 기대한다.

